

朝鮮時代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eonrimbohun* Published by Joseon Dynasty

朴 文 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 言 | 3.2 金剛山 表訓寺版 「禪林寶訓」 |
| 2. 「禪林寶訓」의 收錄禪師와 引用根據 | 3.3 黃州 李順才家版 「禪林寶訓」 |
| 2.1 「禪林寶訓」의 收錄禪師 | 4. 朝鮮時代 刊行 「禪林寶訓」의 版種別 |
| 2.2 「禪林寶訓」의 引用根據 | 書誌的 特徵 |
| 3. 朝鮮時代 刊行의 「禪林寶訓」 | 5. 結 論 |
| 3.1 母后山 大光寺版 「禪林寶訓」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大光寺와 表訓寺 및 李順才家 등에서 간행된 「禪林寶訓」의 각 판종별 서지적 특징 등을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禪林寶訓」은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禪門의 先德祖師들이 행한 嘉言善行을 모아서 撰集한 禪法書로 상·하권에 포함 34선사 278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禪宗禪師들의 종파는 雲門宗·曹洞宗·臨濟宗 등이고 그 중에서도 臨濟宗의 楊岐派와 黃龍派의 선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禪林寶訓」의 각 法語의 말미에 수록된 引用根據는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은 略式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일한 인용근거가 연속될 경우에는 各條마다 기록한 경우도 있고 先條에는 생략하고 末條에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3)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禪林寶訓」의 版種은 고려시대의 靑龍寺版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도합 4종이며, 조선시대의 大光寺版은 중종 20년(1525)에 순천의 母後山 大光寺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후원 아래 張壽命·道信·戒心 등의 판각에 의하여, 表訓寺版은 중종 37년(1542)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후원으로 智熙禪師의 판각에 의하여, 李順才家版은 명종 10년(1555)에 黃海道 黃州 西面 芻池里의 李順才家에서 그의 처 許氏 등의 후원으로 罔雄·罔奄·守衍·惠衍 등의 판각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4)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3種의 「禪林寶訓」은 각 판종별 서지적 특징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靑龍寺版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간행된 듯하며, 靑龍寺版은 우리나라에서 初刊된 경우였던 만큼 中朝 元版의 저본을 충실히 覆刻하여 元版의 遺制를 그대로 답습한 편이었으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은 款式과 형태적인 면에서 元版의 遺制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사정에 적절하도록 간행되어 우리나라 판본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要語: 「禪林寶訓」, 靑龍寺版, 大光寺版, 表訓寺版, 李順才家版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8년 2월 17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1일

서지학연구, 제73집, 63-8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63]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Seonrimbohun* published in Joseo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eonrimbohun* is a book of lessons used in Zen Buddhism. This collection compiles the sayings and teachings of ancient monks of high virtue, who set the examples for the inner cultivation and training of scholars who practice the way of zen. *Seonrimbohun* is comprised of two volumes. The first volume compiles the 142 sayings of 17 monks, and the second volume has 136 sayings from 17 monks, with a total of 278 sayings from 34 monks. The monks featured in the two volumes are members of the following Orders: Unmun Order, Jodong Order, and Imje Order, and the majority of the featured monks are from the Yanggi and Hangnyong branches.

(2) Each saying in *Seonrimbohun* is followed by a reference to its source. The sayings come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most of which are referred to by their abbreviated titles. When a consecutive series of sayings are cited from the same source, the book takes one of two approaches: it indicates the source at the end of each saying, or include the reference only at the end of the last saying, omitting the references from the other sayings.

(3) Four editions of *Seonrimbohun* were created in Korea: The edition of Cheongnyongsa was published in the Goryeo Era ; and the edition of Daegwangsa, Pyohunsa, and the home edition of Leesunjae were published in the Joseon Era. The edition of Daegwangsa was published by carvers Jang Sumyeong, Dosin, and Gyesim at the Daegwang Temple on the Mohusan in Suncheon in the 2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1525),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temple's monks and believers. The edition of Pyohunsa was carved and published by the Buddhist monk, Jiheui, at the Pyohun Temple on the Geumgangsan in the 37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1542),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temple's clerics and believers. The home edition of Leesunjae was published by carvers Gyeongung, Gyeonggeom, Suyeon, and Hyeyeon at the house of Lee Sunjae in Galji-ri, Seomyeon, Hwangju, Hwanghae-do in the 10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1555), under the sponsorship of Lee's wife, Lady Heo.

(4) Judging from their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three editions of *Seonrimbohun* published in the Joseon Era—Daegwangsa, Pyohunsa, and Leesunjae—seems to have been carved and published based on the edition of Cheongnyongsa from the Goryeo Dynasty. Cheongnyongsa, as the first edition of the book published in Korea, faithfully reproduced its original edition published in the Yuan Dynasty. However, the three editions published in the Joseon Era were adapted and edited to suit the circumstanc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exhibit unique characteristics that separate them as Korean editions of *Seonrimbohun*.

Key words: *Seonrimbohun*(禪林寶訓), edition of Cheongnyongsa(靑龍寺版),
edition of Daegwangsa(大光寺版), edition of Pyohunsa(表訓寺版),
home edition of Leesunjae(李順才家版)

1. 緒 言

『禪林寶訓』은 禪法을 닦는 學人들에게 內省과 修行에 龜鑑이 될 수 있도록 깊은 禪定을 닦은 선사들의 道와 德에 관한 교훈을 모아서 찬집한 선가의 敎訓書이며 禪法書이다.

南宋朝의 大慧宗杲(1089-1163) 선사와 竹庵士珪(1092-1146) 선사에 의하여 初集되고 淳熙年間(1174-1189)에 東吳의 沙門 淨善禪師(?-?)에 의하여 도합 278편으로 重集된 『禪林寶訓』은 淳熙 9년(1182)에 淨善禪師의 주도 아래에 初刊되고 元朝 至元 31년(1294)에 永中禪師(?-?)의 주도 아래에 重刊된 뒤, 우리나라에서는 우왕 4년(1378)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初刊¹⁾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禪林寶訓』은 고려 우왕 4년(1378)에 忠淸道 忠州의 靑龍寺에서 幻庵混脩(1320-1392) 선사의 주도 아래에 목판으로 初刊된 이래로 조선시대에는 順天 母后山 大光寺²⁾와 金剛山 表訓寺³⁾ 및 黃州 李順才家⁴⁾ 등에서도 목판으로 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⁵⁾의 후속 연구로 靑龍寺版 『禪林寶訓』과 조선시대에 大光寺·表訓寺·李順才家 등에서 간행된 『禪林寶訓』의 각 版種別 書誌的 特徵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구함으로써 조선시대 『禪林寶訓』의 간행상황과 개괄을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2. 『禪林寶訓』의 收錄禪師와 引用根據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들의 宗派와 著述 및 수록된 내용의 權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시대의 靑龍寺版과 조선시대의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3종의 『禪林寶訓』을 중심으로 수록된 선사와 引用根據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禪林寶訓』의 收錄禪師

『禪林寶訓』 상권에 17선사 142편의 法語와 하권에 17선사 136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상하 2권에 도합 34선사 278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다.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들의 著述과 系譜를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表 1>·<表 2>와 같다.

-
- 1)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忠州]: [靑龍寺], [禪王 4(1378)].
 - 2)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全羅道 順天]: [母后山 大光寺], [中宗 20(1525)].
 - 3)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 4)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 [李順才家], [明宗 10(1555)].
 - 5) 朴文烈,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2輯(2017. 12), 21-48. 參看.

<表 1> 「禪林寶訓」에 收錄된 禪師와 著述⁶⁾

番號	禪師名	朝代	生歿年代	俗姓	別稱	主要 著述
01	明教契嵩	北宋	1007-1072	李	佛日契嵩·仲靈·潛子	「傳法正宗論」·「傳法正宗記」·「論原」· 「法寶壇經」·「原教篇」·「輔教編」· 「鐙津集」·「山游唱和詩集」
02	圓通居訥	北宋	1010-1071	蹇	居訥祖印·廬山	「廬山野錄」
03	大覺懷璉	北宋	1010-1090	陳	大覺禪師·育王懷璉	「妙道篇」·〈答侍郎孫莘老書〉
04	雲居曉舜	北宋	? -1068	胡	光夫·舜老夫·大愚曉舜	—
05	浮山法遠	北宋	0991-1067	王	圓鑒法遠·柴石老人	「九帶集」
06	五祖法演	北宋	1024-1104	鄧	東山法演·東山演祖	「五祖法演禪師語錄」
07	白雲守端	北宋	1025-1072	曷	白雲端·法華端	「白雲守端禪師廣錄」·「白雲守端禪師語錄」
08	晦堂祖心	北宋	1025-1100	鄒	寶覺祖心·黃龍寶覺	「冥樞會要」·「寶覺祖心禪師語錄」
09	黃龍慧南	北宋	1002-1069	章	積翠·普覺慧南·黃檗南	「黃龍慧南禪師語錄」·「語要」·「書尺集」
10	洪英邵武	北宋	1012-1070	陳	潞潭洪英·英邵武	「潞潭英禪師語」
11	眞淨克文	北宋	1025-1102	鄭	寶峰眞淨·雲菴眞淨	「雲庵眞淨禪師語錄」
12	湛堂文準	北宋	1061-1115	梁	潞潭文準·潞潭準	「湛堂準和尚語」·「準禪師語錄」
13	靈源惟清	北宋	? -1117	陳	黃龍清·佛壽禪師	「靈源清禪師語」
14	圓悟克勤	北南	1063-1135	駱	佛果圓悟·眞覺禪師	「佛果克勤禪師心要」·「碧巖錄」· 「佛果擊節錄」·「圓悟佛果禪師語錄」
15	佛鑑慧懃	北宋	1059-1117	汪	慧懃·懃公·太平慧懃	—
16	佛眼清遠	北宋	1067-1120	李	龍門清遠·龍門佛眼	「舒州龍門佛眼和尚語錄」
17	高菴善悟	北南	1074-1132	李	高菴悟·雲居善悟	—
18	雪堂道行	北南	1089-1151	葉	雪堂行·烏巨行	「雪堂行和尚語」·「雪堂行拾遺錄」
19	黃龍死心	北宋	1043-1116	黃	死心悟新·死心叟	「死心悟新禪師語錄」
20	草堂善清	南宋	1057-1142	何	潞潭善清·黃龍善清	「草堂清和尚語」
21	山堂道震	北南	1079-1161	趙	百丈道震·黃龍道震	「黃龍道震禪師悟道因緣」
22	妙喜宗杲	南宋	1089-1163	奚	大慧宗杲·大慧普覺	「正法眼藏」·「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 「大慧普覺禪師普說」·「大慧普覺禪師書」· 「大慧普覺禪師語錄」·「禪林寶訓」
23	萬菴道顔	北南	1094-1164	鮮于	東林道顔·東林已菴道顔	「已庵法語」
24	昭覺大辯	南宋	? - ?	—	昭覺辯	—
25	佛智端裕	北宋	1085-1150	錢	育王端裕·佛智大尊	—
26	水菴端一	南宋	1108-1177	馬	水菴師一·淨慈一·一槌	「水菴一禪師語」
27	月堂道昌	南宋	1089-1171	吳	淨慈道昌·佛行禪師	—
28	心聞曇貫	南南	1103-1163	江	萬年曇貫·龍翔心聞	「心聞貫和尚語」
29	拙菴佛照	南宋	1121-1203	彭	拙菴德光·佛照德光	「佛照光和尚語」·「佛照禪師奏對錄」
30	密菴咸傑	南宋	1118-1186	鄭	天童咸傑·烏巨·天童傑	「密菴傑和尚語」·「密菴和尚語錄」
31	自得慧暉	南宋	1097-1183	張	自得慧暉·淨慈慧暉	「淨慈慧暉禪師語錄」
32	或菴師體	南宋	1108-1179	羅	焦山師體·或庵體	「或庵體禪師語」
33	瞎堂慧遠	南宋	1103-1176	彭	佛海瞎堂·靈隱佛海	「瞎堂慧遠禪師廣錄」
34	簡堂行機	南宋	1113-1180	楊	簡堂機·國清行機	—

6) 本表는 필자가 <人名規範檢索(<http://authority.dila.edu.tw/person/>)>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表 2> 「禪林寶訓」에 收錄된 禪師別 系譜⁷⁾

系號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①	明教契嵩 (01/05)	[成覺] ·	—	—	—	—	—	—	—
②	雲居曉舜 (04/04)	[佛慧法泉]	[幽谷祐] ·	—	—	—	—	—	—
③	圓通居訥 (02/05)	[興國智昱] ·	—	—	—	—	—	—	—
④	[振宗義懷]	[圓照宗本]	[大通善本]	[妙湛思慧]	月堂道昌 (27/05)	[五雲悟] ·	—	—	—
⑤	大覺懷璉 (03/04)	[淨慧戒弼] ·	—	—	—	—	—	—	—
⑥	[投子義青]	[芙蓉道楷]	[丹霞子淳]	[宏智正覺]	自得慧輝 (31/03) ·	—	—	—	—
⑦	浮山法遠 (05/08)	[開聖寶情] ·	—	—	—	—	—	—	—
⑧	[石霜楚圓]	[楊岐方會]	白雲守端 (07/06)	五祖法演 (06/12)	圓悟克勤 (14/07)	妙喜宗杲 (22/16)	萬菴道顏 (23/17)	[淨慈彥充] ·	—
—	—	—	—	—	—	—	拙菴佛照 (29/13)	[浙翁如琰]	[淮海原肇] ·
—	—	—	—	—	—	瞎堂慧遠 (33/02)	[歸雲如本]	[華嚴權] ·	—
—	—	—	—	—	—	[佛性法泰]	昭覺大辯 (24/04) ·	—	—
—	—	—	—	—	—	佛智端裕 (25/02)	水菴端一 (26/09)	[息菴達觀]	[天衣文蔚] ·
—	—	—	—	—	—	[護國景元]	或菴師體 (32/09)	[天童智穎]	[徑山如珪] ...
—	—	—	—	—	—	—	簡堂行機 (34/07) ·	—	—
—	—	—	—	—	—	[虎丘紹隆]	[應菴曇華]	密菴咸傑 (30/06)	[松源崇岳] ...
—	—	—	—	—	佛鑑慧勤 (15/10)	[谷山海] ·	—	—	—
—	—	—	—	—	佛眼清遠 (16/05)	高菴善悟 (17/13)	[雲居自圓] ·	—	—
—	—	—	—	—	—	雪堂道行 (18/16)	[長蘆守仁] ·	—	—
—	—	—	—	—	—	[竹庵士珪]	[雲居德昇] ·	—	—
—	—	黃龍慧南 (09/11)	晦堂祖心 (08/10)	靈源惟清 (13/19)	[長靈守卓]	[育王介謨]	心聞曇貴 (28/03)	[大清鑑] ·	—
—	—	—	—	黃龍死心 (19/09)	[超宗慧方]	[谷堂賴] ·	—	—	—
—	—	—	—	草堂善清 (20/07)	山堂道震 (21/08)	[德山慧初] ·	—	—	—
—	—	—	—	[靑原惟信]	[松蘿山祖 庵主]	[延慶叔] ·	—	—	—
—	—	—	—	洪英邵武 (10/05)	[大滂齊恂] ·	—	—	—	—
—	—	—	—	眞淨克文 (11/08)	湛堂文準 (12/10)	[三角智堯] ·	—	—	—
計	5(26)	1(11)	4(29)	5(57)	6(38)	5(49)	7(62)	1(6)	34(278)

7) 本表는 필자가 <人名規範檢索(<http://authority.dila.edu.tw/person/>)>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禪師名(01/05)’ 등은 ‘禪師名(收錄禪師番號/收錄法語篇數)’를 의미하는 것이다. ‘[]’는 『禪林寶訓』의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禪師名이며 ‘□’는 『禪林寶訓』의 撰集이나 刊行 등에 관련이 있는 禪師名이다.

<表 1>을 통하여 볼 때,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는 도합 34선사이며, 선사들의 著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록된 선사들이 생존한 朝代는 대체로 北宋朝와 南宋朝이다. 그 중에서 출생연도가 비교적 이른 선사들은 北宋朝의 浮山法遠(991-1067) 선사와 黃龍慧南(1002-1069) 및 明教契嵩(1007-1072) 선사 등이며 비교적 늦은 선사들은 南宋朝의 簡堂行機(1113-1180) 선사와 密菴咸傑(1118-1186) 및 拙菴佛照(1121-1203) 선사 등이다.

또한 著述이 비교적 다양한 선사는 北宋朝의 明教契嵩(1007-1072) 선사와 南宋朝의 圓悟克勤(1063-1135) 선사 및 그의 大弟子인 妙喜宗杲(1089-1163) 선사 등이다.

<表 2>를 통하여 볼 때,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들은 六祖惠能(638-713) 선사의 11대에서 18대까지의 선사들로 제11대 5선사 26편, 제12대 1선사 11편, 제13대 4선사 29편, 제14대 5선사 57편, 제15대 6선사 38편, 제16대 5선사 49편, 제17대 7선사 62편, 제18대 1선사 6편 등 도합 8대 34선사 278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들의 계보는 六祖惠能禪師 下代の 제11대를 중심으로 볼 때, ①明教契嵩禪師와 ②雲居曉舜 선사는 ①靑原行思(671-741) - ②石頭希遷(701-791) - ③天皇道悟(748-807) - ④龍潭崇信(753-823) - ⑤德山宣鑑(782-865) - ⑥雪峰義存(822-908) - ⑦雲門文偃(864-949) - ⑧德山緣密(?-?, 五代十國朝) - ⑨文殊應眞(?-?, 五代十國朝) - ⑩洞山曉聰(?-1030, 北宋朝)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고 ③圓通居訥 선사는 ⑦雲門文偃 - ⑧香林澄遠(?-987, 北宋朝) - ⑨智門光祚(?-?, 北宋朝) - ⑩延慶子榮(?-?, 北宋朝)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으며, ④振宗義懷(993-1064) 선사는 ⑨智門光祚 - ⑩雪竇重顯(980-1052)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⑤大覺懷璉 선사는 ⑦雲門文偃 - ⑧明教師寬(?-?, 南漢朝) - ⑨五祖師戒(?-?, 北宋朝) - ⑩泐潭懷澄(?-?, 北宋朝)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고 ⑥投子義青(1032-1083) 선사는 ②石頭希遷 - ③藥山惟嚴(746-829) - ④雲巖曇晟(782-841) - ⑤洞山良价(807-869, 曹洞宗) - ⑥雲居道膺(835-902) - ⑦同安道丕(?-?, 五代十國朝) - ⑧同安觀志(?-?, 五代十國朝) - ⑨梁山緣觀(?-?, 北宋朝) - ⑩大陽警玄(943-1027)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으며, ⑦浮山法遠 선사는 ①南嶽懷讓(677-744) - ②馬祖道一(709-788) - ③百丈懷海(720-814) - ④黃檗希運(751-850) - ⑤臨濟義玄(767-866) - ⑥興化存獎(830-888) - ⑦寶應慧顒(?-952) - ⑧風穴延沼(897-973) - ⑨首山省念(926-993) - ⑩葉縣歸省(?-?, 北宋朝)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고 ⑧石霜楚圓(986-1039) 선사는 ⑨首山省念 - ⑩汾陽善昭(946-1023) 이하에서 法嗣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들의 종파는 雲門文偃 선사의 雲門宗系列은 明教契嵩·雲居曉舜·圓通居訥·大覺懷璉·月堂道昌 등 5선사이고 洞山良价 선사의 曹洞宗系列은 自得慧輝의 1선사이며 臨濟義玄 선사의 臨濟宗系列은 浮山法遠 등을 비롯한 28선사이다.

특히 臨濟宗은 창시자인 臨濟義玄 선사의 6세손인 石霜楚圓 선사의 下代에서 楊岐方會(992-1049) 선사의 楊岐派와 黃龍慧南 선사의 黃龍派로 분파되어 楊岐派系列은 17선사이며 黃龍派系列은

10선사이다.

따라서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의 대부분은 宋朝의 선사들로 臨濟宗의 楊岐派와 黃龍派에 속하는 선사들을 중심으로 編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禪林寶訓』의 引用根據

한편, 『禪林寶訓』에 수록된 34선사 278편의 法語 말미에는 인용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表 3>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에 收錄된 禪師別 法語數와 引用根據⁸⁾

番號	卷次	禪師名	法語	引用根據
01	卷上	明教契嵩	5	『鐔津集』·『九峯集』·『鐔津集』·『西湖廣記』·『西湖廣記』
02	卷上	圓通居訥	5	『九峯集』·『圓通行實』·『廬山野錄』·『廬山野錄』·『九峯集』
03	卷上	大覺懷璉	4	『九峯集』·〈答侍郎孫莘老書〉·〈與九仙諷和尚書〉·『九峯集』
04	卷上	雲居曉舜	4	『九峯集』·-(『坦然庵集』)·二事『坦然庵集』·『白雲廣錄』
05	卷上	浮山法遠	8	『岳侍者法語』·〈雲首座書〉·-[〈與淨因臻和尚書〉]·二事〈與淨因臻和尚書〉·〈惠力芳和尚書〉·〈與青華嚴書〉·『西湖記聞』·『浮山實錄』
06	卷上	五祖法演	12	〈佛鑑答投子書〉·『白雲廣錄』·-[『坦然庵集』]·二事『坦然庵集』·〈圓悟書〉·〈與佛眼書〉·〈耿龍學與高庵書〉·『耿龍學跋法語』·〈答靈源書〉·『蟾侍者日錄』·『坦然庵集』·『五祖法演行狀』
07	卷上	白雲守端	6	『白雲夜話』·〈答功輔書〉·『白雲廣錄』·『白雲實錄』·『白雲實錄』·『湛堂記聞』
08	卷上	晦堂祖心	10	『靈源拾遺』·〈與草堂書〉·『靈源拾遺』·〈遁庵壁記〉·『章江集』·『章江集』·〈答張無盡書〉·〈與祥和和尚書〉·〈與謝景溫書〉·已上並見『靈源拾遺』
09	卷上	黃龍慧南	11	『林間錄』·〈與黃蘗勝書〉·『章江集』·〈答荊公書〉·〈與翠岳眞書〉·『龍山廣錄』·『林間錄』·『林間錄』·『寶峯記聞』·〈遁庵壁記〉·〈[遁庵]壁記〉
10	卷上	洪英邵武	5	『龍山廣錄』·〈[遁庵]壁記〉·『靈源拾遺』·-[『靈源拾遺』]·『靈源拾遺』
11	卷上	眞淨克文	8	『順語錄』·『山堂小參』·『李商老日涉記』·〈[遁庵]壁記〉·『[李商老]日涉記』·『[李商老]日涉記』·『[李商老]日涉記』·『[李商老]日涉記』
12	卷上	湛堂文準	10	-[『癩可贅疣集』]·二事『癩可贅疣集』·〈與李商老書〉·『寶峯實錄』·『寶峯實錄』·〈答魯直書〉·『[李商老]日涉記』·『寶峯記聞』·『[李商老]日涉記』·『癩可贅疣集』
13	卷上	靈源惟清	19	『靈源拾遺』·〈筆帖〉·〈筆帖〉·『蟾侍者日錄』·〈筆帖〉·〈筆帖〉·〈筆帖〉·〈筆帖〉·『[蟾侍者]日錄』·『章江集』·『章江集』·-[〈與德和尚書〉]·〈與德和尚書〉·『瑯琊別錄』·『癩可贅疣集』·-[『寶峯記聞』]·-[『寶峯記聞』]·『寶峯記聞』·〈與虞察院書〉
14	卷上	圓悟克勤	7	〈與開主簿〉·『癩可贅疣集』·『白雲廣錄』·〈與佛智書〉·〈雙林石刻〉·『雲門庵集』·『蟾和尚[侍者]日錄』
15	卷上	佛鑑慧勤	10	『蟾侍者日錄』·『[蟾侍者]日錄』·〈南華石刻〉·『[蟾侍者]日錄』·『[蟾侍者]日錄』·『[蟾侍者]日錄』·〈與秀紫芝書〉·-[『山堂小參』]·『山堂小參』·〈與耿龍學書〉

8) 本表는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에 수록된 선사별 法語篇數와 引用根據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으로 引用根據事項의 각 부호는 ‘著編書’, ‘書簡’, ‘筆者補完’, ‘(引用根據省略)’ 등을 의미한다.

番號	卷次	禪師名	法語	引用根據
16	卷上	佛眼清遠	5	〈與眞牧書〉・〈與耿龍學書〉・「龍間記聞」・「東湖集」・「眞牧集」 「雲居實錄」・「眞牧集」・〈與耿龍學書〉・「眞牧集」・「龍昌集」・「旦庵逸事」・ 「山堂小參」・「眞牧集」・〈與李都運書〉・〈與死心書〉・「〔龍間〕記聞」・ -「〔龍間〕記聞」・「〔龍間〕記聞」
17	卷上	高菴善悟	13	「東湖集」〈范延齡事〉(出「皇朝類苑」)・〈與王十朋書〉・「東湖集」・「〔白雲〕廣錄」・ 「〔白雲〕廣錄」・「〔白雲〕廣錄」・「旦庵逸事」・「〔白雲〕廣錄」・「〔旦庵〕逸事」・ 〈與竹庵書〉・「聰首座記聞」・「〔聰首座〕記聞」・「〔旦庵〕逸事」・「〔雪堂〕行實」・ 「〔雪堂〕行實」・「聰首座記聞」
18	卷下	雪堂道行	16	〈與靈源書〉・「〔龍山〕廣錄」・「〔龍山〕廣錄」・「黃龍」實錄」・「黃龍實錄」・ 因〈與韓子蒼書〉・一本見「林間錄」・「西山記聞」・「〔黃龍〕實錄」
19	卷下	黃龍死心	9	〈與韓子蒼書〉・〈與山堂書〉・〈與一書記書〉・〈疎山石刻〉・「〔龍山〕廣錄」・ 「疎山實錄」・「清泉[才庵主]記聞」
20	卷下	草堂善清	7	「清泉才庵主記聞」・〈與周居士書〉・〈與張尙書書〉・〈與趙超然書〉・ 「眞牧集」・「〔清泉才庵主〕記聞」・「幻庵集」・「〔李商老〕日涉記」
21	卷下	山堂道震	8	「可庵集」・「可庵集」・「可庵集」・「〔廬山〕智林集」・〈與寶和尚書〉・〈與竹庵書〉・ 「可庵集」・-「〔與山堂書〕」・〈與山堂書〉・〈薊林書〉・〈與韓子蒼書〉・ 〈「雙林」石刻〉・「可庵集」・「〔西湖〕記聞」・-「〔與山堂書〕」・已上並見「可庵集」
22	卷下	妙喜宗杲	16	「廬山智林集」・「〔廬山〕智林集」・-「〔與妙喜書〕」・〈與妙喜書〉・ 「〔廬山〕智林集」・「〔廬山〕智林集」・-「〔與草堂書〕」・-「〔與草堂書〕」・ -「〔與草堂書〕」・-「〔與草堂書〕」・-「〔與草堂書〕」・〈與草堂書〉・「清泉集」・ 已上並見「〔廬山〕智林集」・「眞牧集」・「〔西湖〕記聞」・「〔萬菴〕法語」
23	卷下	萬菴道顏	17	「月窟集」・「月窟集」・「月窟集」・「月窟集」
24	卷下	昭覺大辯	4	「〔雙林〕實錄」・〈與鄭居士法語〉
25	卷下	佛智端裕	2	「雙林實錄」・〈與月堂書〉・「〔水菴〕法語」・「西湖記聞」・「西湖記聞」・ 見「畫像」・〈與梅山潤書〉・見「投子書」・「〔水菴〕行實」
26	卷下	水菴端一	9	〈與舜和尚書〉・「北山記聞」・「北山記聞」・一本見「黃龍石刻」・ 一本見「廬山岳府惠太師記聞」
27	卷下	月堂道昌	5	「〔心閑〕語錄」・〈與竹庵書〉・〈與張子韶書〉
28	卷下	心閑曼貴	3	「〔幻庵〕記聞」・「〔白雲〕廣錄」・「幻庵集」・「畫監寺書」・-「〔與興化普庵書〕」・ 〈與興化普庵書〉・〈與洪老書〉・「幻庵記聞」・「幻庵集」・〈與觀老書〉・ 「幻庵集」・見「靈隱石刻」・「然侍者記聞」
29	卷下	拙菴佛照	13	〈與施司諫書〉・〈與笑庵書〉・見「岳和尚書」・「慧侍者記聞」・〈與普慈書〉・ 〈與水庵書〉
30	卷下	密菴咸傑	6	見「簡堂書」・〈與尤侍郎書〉・〈與或庵書〉
31	卷下	自得慧輝	3	-「〔天台野錄〕」・「天台野錄」・「虎丘記聞」・「〔或菴〕語錄」異此・「〔虎丘〕記聞」・ 見「曾公書」・見「簡堂書」・〈與圓極書〉・「〔或菴〕行狀」
32	卷下	或菴師體	9	〈與顏侍郎書〉・「虎丘記聞」
33	卷下	瞎堂慧遠	2	「懶庵集」・-「〔與李侍郎二書〕」・〈與李侍郎二書〉・〈景星石刻〉・「高侍者記聞」・ 〈與吳給事書〉・-「〔寒山寺石刻〕」
34	卷下	簡堂行機	7	
計	上下	34禪師	278篇	278根據

『禪林寶訓』의 278편의 法語 중에서 257편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引用根據는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은 略式的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어 原名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으며, 동일한 引用根

據가 연속될 경우에는 各條마다 기록한 경우도 있고 先條에는 생략하고 末條에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간혹 나타나고 있는 ‘見某(8)’·‘二事某’(4)·‘已上並見某’(3)·‘一本見某’(3)·‘出某’(1)·‘因某’(1)·‘某異此’(1) 등의 기록은 引用根據의 정확을 더하기 위한 記述法인 듯하다.

3. 朝鮮時代 刊行의 『禪林寶訓』

조선시대에 간행된 『禪林寶訓』으로는 중종 20년(1525)에 順天 母后山 大光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비롯하여 중종 37년(1542)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간행된 목판본 및 명종 10년(1555)에 黃州 李順才家에서 간행된 목판본 등 3종의 목판본이 있으며, 이들 각 판본은 현재까지도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3종의 『禪林寶訓』은 시기적으로 당시 불교를 독신하며 懶庵普雨⁹⁾ 선사를 등용하여 禪敎兩宗의 復興을 도모한 중종대왕의 계비인 文定王后(大妃)와 普雨禪師 및 그의 문도¹⁰⁾들에 의한 조력으로 간행된 것이 아닌가 하나, 이에 관하여는 別稿를 검토하고자 한다.

3.1 母后山 大光寺版 『禪林寶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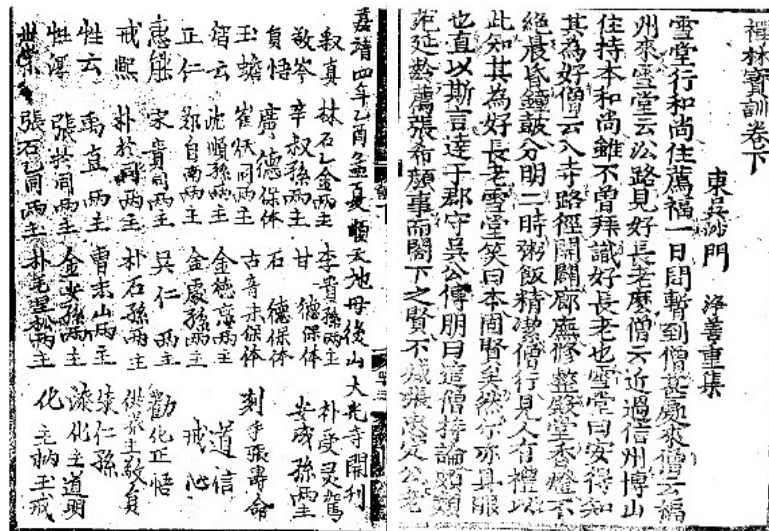
大光寺는 全羅道 順天의 母后(後)山에 소재하던 사찰이다. 일설에 의하면 ‘母后山’의 산명은 나라가 망하자 母后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¹¹⁾ 大光寺는 이러한

9) 普雨(1509-1565): 朝鮮朝 중기의 승려로 號는 虛應·懶庵이며 法名은 普雨이다. 文定大妃의 外護 下에 度牒制度和 僧科制度를 부활시키는 등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5세에 金剛山 摩訶衍庵으로 출가한 뒤 金剛山 일대의 長安寺·表訓寺 등에서 6년 동안 정진하면서 大藏經과 『周易』을 공부하였다. 京畿道 龍門寺의 智行禪師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당시 儒學者들과도 교유가 깊었으며, 특히 宰相 鄭萬鍾과의 교유에 의하여 文定大妃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명종 3년(1548)에 奉恩寺의 주지로 취임한 뒤, 명종 5년(1550) 12월에 文定大妃가 禪敎兩宗을 부활시킬 것을 備忘記로 내리자 명종 6년(1551) 5월에 禪宗과 敎宗이 다시 부활되었으며, 6월에는 奉恩寺가 禪宗의 본사로 지정되고 奉先寺가 敎宗의 본사로 지정되면서 그는 判禪宗事都大禪師로 임명되었다. 또한 동년(1551) 11월에는 度僧試를 실시하여 度牒制度를 復活시키고 명종 7년(1552) 4월에는 僧科制度를 부활시켰다. 명종 10년(1555) 9월에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종단의 기반이 안정되자 判事職과 奉恩寺 住持職을 사양하고 春川의 淸平寺에 머물렀다. 명종 15년(1560)에 다시 禪宗判事와 奉恩寺 住持에 임명되었으나 雲浮寺에서 왕자의 胎峯이 있는 산의 나무를 베어 사원을 증축한 일에 연루되어 判事職을 박탈당하고 奉恩寺 주지에서도 물러나 洗心亭에 머물렀으며, 동년(1560) 12월에는 다시 禪宗判事로 임명되어 奉恩寺에 머물렀다. 명종 20년(1565) 4월에 檜巖寺 重創事業을 마치고 낙성식을 겸한 無遮大會를 개설하였으나 同月에 文定大妃가 薨去하자 寒溪山 雪岳寺에 은거하였다. 栗谷 李珥가 <論妖僧普雨疏>를 올려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함에 따라 濟州島로 유배되어 濟州牧使 邊協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그는 禪敎一體論을 주창하여 禪과 敎를 달리 하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고 一正說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저서로는 『虛應堂集』(3권), 『懶庵雜著』(1권),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寶主夢中問答』(1권), 『勸念要錄』(1권) 등이 있다.

10) 黃仁奎, “懶庵普雨의 生涯와 佛教界 門徒,” 『東國史學』 第40輯(2004), 247-282. 參看.

11) 安鼎福 編, 『東史綱目』, 附錄. 下卷. 地理考. ‘三韓考’條.

유래를 가진 母后山에 소재한 사찰이었으나, 사찰창건의 내력이나 사찰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母后山 大光寺에서는 중종 20년(1525)에 『禪林寶訓』이 간행된 바 있으며, 하권의 말미에는 刊記・施主・刻手・勸化¹²⁾・供養主¹³⁾・漆化主¹⁴⁾・化主納¹⁵⁾ 등의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있다.¹⁶⁾



<寫眞 1> 順天 母后山 大光寺版 「禪林寶訓」의 書影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大光寺版 『禪林寶訓』의 간기에는 “嘉靖四年乙酉孟夏 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刊”으로 기록되어 있어 嘉靖 4년(중종 20, 1525) 5월에 順天의 母後山 大光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今湖南長興府 … 又有母后山 諺傳 國亡 母后避入此山 故因得名云 ….”

- 12) 勸化: 佛教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佛道에 入門하도록 하거나 寺刹의 三寶를 위하여 信者들에게 財物의 喜捨로 善行을 쌓을 것을 勸誘하는 것을 의미하며, ‘化主’라고도 한다.
- 13) 供養主: 寺刹에서 부처님께 飲食・臥具・湯藥・衣服 등을 바치는 事事供養과 恭敬・讚歎・禮拜 등을 바치는 精神供養을 하는 所任 또는 그 所任의 僧侶를 의미하는 것이다.
- 14) 漆化主: 옷나무 또는 황칠나무에서 채취한 樹液을 용도에 맞게 精製하여 菌과 蟲害에 대한 抵抗力을 높이고 腐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器物에 漆을 입히는 일 또는 그 所任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漆匠이라고도 한다.
- 15) 化主納: 信徒들의 집을 돌며 寺刹에 필요한 糧食・物件・比容 등의 施物을 얻는 소임의 僧侶를 의미하는 것이다.
- 16)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全羅道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 [中宗 20(1525)]. 下卷. 卷尾.

“嘉靖四年乙酉孟夏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刊 / 釋眞 敬岑 貝悟 玉蟾 智云 惠能 戒熙 性云 性淳 世崇 / 林乞金兩主 辛叔孫兩主 廣德保兩主 崔伏同兩主 沈順孫兩主 鄭自南兩主 宋貴同兩主 朴於同兩主 禹直兩主 張於同兩主 張乞同兩主 / 李貴孫兩主 甘德保兩主 石德保兩主 古音未保兩主 金德京兩主 金處孫兩主 吳仁兩主 朴石孫兩主 曹末山兩主 金安孫兩主 朴毛呈松兩主 朴受靈駕 安成孫兩主 刻手 張壽命 道信 戒心 勸化 正悟 供養主 敬貝 朱仁孫 漆化主 道明 化主納 玉戒.”

大光寺版『禪林寶訓』은 釋眞・敬岑・眞悟・玉蟾・智云・惠能・戒熙・性云・性淳・世崇・廣德・甘德・石德 등의 승려들을 비롯하여 林丕金・辛叔孫・崔伏同・沈順孫・鄭自南・宋貴同・朴於同・禹直・張於同・張丕同・李貴孫・古音未・金德京・金處孫・吳仁・朴石孫・曹末山・金安孫・朴毛呈松・朴受・安成孫 등 개인과 兩主의 後援과 保體¹⁷⁾ 및 靈駕 등을 목적으로 張壽命・道信・戒心 등의 각수들에 의하여 관각되고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간행을 위한 勸化 正悟와 供養主 敬眞・朱仁孫, 漆化主 道明, 化主 衲 玉戒 등의 조력에 관하여도 기록되어 있다.

大光寺版『禪林寶訓』을 간행하는데 조력한 인물들에 관한 자세한 行歷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그 중에 敬岑¹⁸⁾・戒熙¹⁹⁾・性云²⁰⁾・性淳²¹⁾・道信²²⁾ 등의 단편적인 행력은 찾을 수 있다.

3.2 金剛山 表訓寺版『禪林寶訓』

表訓寺는 江原道 淮陽郡 內金剛面 長淵里의 金剛山 萬瀑洞에 있는 사찰이다. 表訓寺는 楡岾寺와 長安寺 및 神溪寺와 함께 금강산의 4대 사찰이었으며, 그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寺刹이기도 하다. 表訓寺 동북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法起菩薩²³⁾의 住處인 法起眞身이라 인식되면서 表訓寺는 金剛山 法起信仰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表訓寺의 本堂은 여타의 사찰과는 달리 ‘般若寶殿’이라 하고 불상을 법당의 동쪽에 있는 法起眞身峰으로 향하도록 안치하였으며, 사찰 뒤의 法起峰에는 고유한 祭祀儀式도 행하여졌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 그 절차와 시기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金剛山 表訓寺에서는 중종 37년(1542)에『禪林寶訓』이 간행된 바 있으며, 하권의 말미에는 刊記・祝願・施主・刻手・木手・供養主・未醬²⁴⁾・別座・緣化 등의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있다.²⁵⁾

17) 保體: 몸을 保護한다는 뜻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祝願文의 姓名 밑에 쓰는 用語이다.

18) 敬岑(?-?): 효종 원년(1650)에 公州 甲寺의 <三身掛佛幀>의 首書僧으로 忠淸地域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韓國歷代書畫家事典』(大田: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190-192.)이며, 현종 원년(1660) 무렵부터 8년에 걸쳐 丁酉再亂에 소실된 順天 仙巖寺를 重創한 인물이기도 하다.

19) 戒熙(?-?): 선조 3년(1570)에 安東 廣興寺에서 梵魚寺에 소장되어 있는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을 그린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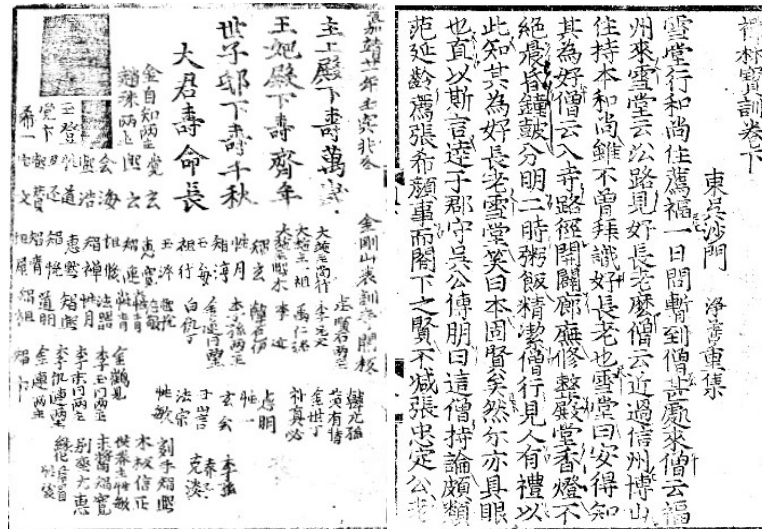
20) 性云(?-?): 선조 3년(1550)에 日本 愛知縣 新長谷寺에 소장되어 있는 <三藏菩薩圖>를 그린 인물(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韓國歷代書畫家事典』, p.952.)이다.

21) 性淳(?-?): 선조 15년(1582)에 梁山의 新興寺를 重創하고 선조 20년(1587)에 雲門・雲默 등과 함께 日本 大阪 四天王寺에 소장되어 있는 <釋迦說法圖>를 그린 인물(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韓國歷代書畫家事典』, p.948.)이며, 효종 7년(1656)에 順天 松廣寺의 羅漢殿 尊像들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인물이다.

22) 道信(?-?): 광해군 4년(1612) 6월에 忠州 靑龍寺에 住持하며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開板한 인물이다.

23) 法起菩薩: 『華嚴經』 <諸菩薩住處品>에는 東北方의 海中金剛山에 法起菩薩이 거처하며 1만2천여 명의 眷屬을 거느리고 지금도 說法하고 있다고 한다.

24) 未醬: ‘未醬’이라고도 하며, 메주로醬을 담가서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醬이다. 『救荒補遺方』에는 未醬을 末醬이라 하였으며 메주는 콩과 밀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그 재료의 비율은 콩과 밀이 2:1로 오늘날의



<寫眞 2> 金剛山 表訓寺版「禪林寶訓」의 書影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表訓寺版「禪林寶訓」의 간기에는 “嘉靖廿一年壬寅兆冬 金剛山表訓寺開板”이라 기록되어 있어 嘉靖 21년(중종 37, 1542) 冬節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祝願文은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大君壽命長”으로 중종²⁶⁾과 文定王后²⁷⁾ 및 世子(後 仁宗)²⁸⁾ 및 慶源大君(後 明宗)²⁹⁾ 등의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내용이다.

메주와 크게 달랐다.

- 25)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下卷. 卷尾.

“嘉靖廿一年壬寅兆冬 金剛山表訓寺開板/ 主上殿下壽萬歲/ 王妃[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大君壽命長/ 金自知兩主 趙珠兩 玉登 覺下 希一/ 覺玄 會海 熙浩 性道 忍還 智贊 宝文/ 大施主 相行 大施主 一祖 大施主 熙水 智玄 性月 智淳 玉每 祖行 玉沄 惠寬 智連 坦修 智禪 惠默 智悅 智青 祖尾/ 盧順石兩主 李兄文 禹仁孫 李近 韓芑伊 李孫兩主 金連同兩主 白仇丁 熙悅 志敬 大性青 小性青 法器 性月 智熙 道明 智祖/ 韓元孫 黃有情 金世丁 朴眞必 惠明 性一 玄會 크강 法宗 性敏 金鶴見 李玉同兩主 李末同兩主 李仇連兩主 金連兩主 智卞/ 李孫 養了 克淡 刻手 智熙 木板 信正 供養主 性敏 未醬 智寬 別座 元惠 緣化 信眉 性浚.”

- 26) 中宗(1488-1544): 조선 제11대 國王(재위 1506-1544)으로 諱는 懌이고 字는 樂天이며 成宗의 第2子이며 燕山君의 아우이다. 母后는 坡平 尹壕의 따님인 貞顯王后(1462-1530)이며, 妃는 居昌 慎守勤의 따님인 端敬王后(1487-1557)이다. 第1繼妃는 坡平 尹汝弼의 따님인 章敬王后(1491-1515)이며, 第2繼妃는 坡平 尹之任의 따님인 文定王后(1501-1565)이다. 成宗 25년(1494)에 晉城大君에 봉하여지고 연산군 12년(1506)에 燕山君이 폐위된 뒤 國王으로 추대되었다. 三王妃로부터 9남 11녀가 출생되었다.

- 27) 文定王后(1501-1565): 조선 제11대 國王인 中宗의 繼妃로 坡平 尹之任의 따님이며, 成宗의 母后이다. 中宗 12년(1517)에 王妃에 책봉되었으며, 仁宗 1년(1545)에 成宗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大妃로서 8년간 垂簾聽政을 하는 동안 乙巳士禍를 일으켜 尹元老를 海南으로 귀양을 보내고 尹任 등을 賜死하였다. 僧侶 普雨를 신임하여 불교의 부흥을 꾀하여 成宗 5년(1550)에 禪·敎의 兩宗을 부활시키고 僧科·度牒制를 다시 실시하였으며, 中宗의 陵을 普雨禪師가 주지로 있는 奉恩寺로 遷葬하였다. 成宗 8년(1553)에 國政을 親政體制로 바꾼 뒤에도 실질적인 대권은 계속 장악하여 政事를 좌우하였다. 소생은 明宗·懿惠公主·孝順公主·敬顯公主·仁

또한 表訓寺版『禪林寶訓』은 玉登·覺卞·希一·覺玄·會海·熙浩·性道·忍還·智贊·寶文·相行·一祖·熙水·智玄·性月·智淳·玉每·祖行·玉泠·惠寬·智連·坦修·智禪·惠默·智悅·智青·祖尾·熙悅·志敬·大性青·小性青·法器·性月·智熙·道明·智祖·惠明·性一·玄會·그崙·法宗·性敏·智卞·養了·克淡 등의 僧侶들을 비롯하여 金自知·趙珠兩·盧順石·李兄文·禹仁孫·李近·韓芑伊·李孫·金連同·白仇丁·韓元孫·黃有情·金世丁·朴眞必·金鶴見·李玉同·李末同·李仇連·金連 등 개인과 兩主의 후원으로 각수 智熙 등에 의하여 관각되고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간행을 위한 木手 信正, 供養主 性敏, 未醬 智寬, 別座 元惠, 緣化 信眉·性浚 등의 조력에 관하여도 기록되어 있다.

表訓寺版『禪林寶訓』을 刊行하는데 조력한 인물들에 관한 자세한 行歷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그 중에 祖行³⁰⁾·志敬³¹⁾·惠默³²⁾·智祖³³⁾·性一³⁴⁾·性敏³⁵⁾·禹仁孫³⁶⁾·智熙³⁷⁾·信

順公主 등 1男 4女이다.

- 28) 仁宗(1515-1545): 조선 제12대 국왕으로 諱는 帖이며 字는 天胤이다. 중종의 長子로 母后는 坡平 尹汝弼의 따님인 章敬王后이며, 妃는 潘南 朴堧의 따님인 仁聖王后이다. 중종 15년(1520)에 世子로 책봉되어 25년이 지난 중종 39년(1544)에 즉위하였다. 즉위 원년(1545)에 己卯土禍로 罷榜된 賢良科를 복구하고 己卯名賢을 伸冤하여 주었으며, 병환이 위독해지자 대신 尹仁鏡을 불러 慶源大君(後 明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景福宮 正寢에서 31세로 薨去하였다.
- 29) 明宗(1534-1567): 조선 제13대 국왕(재위 1545-1567)으로 諱는 恒이며 字는 對陽이다. 中宗의 第2子이고 仁宗의 아우이다. 母后는 坡平 尹之任의 따님인 文定王后이며 妃는 靑松 沈綱의 따님인 仁順王后이다. 처음에 慶源君으로 봉해졌다가 인종 원년(1545)에 慶源大君으로 改封되었다. 중종이 薨去하고 仁宗이 즉위(1544)하였으나 재위 8개월 만에 薨去하여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母后인 文定大妃(1501-1565)가 垂簾聽政을 하였다. 文定大妃는 불교를 독신하며 普雨禪師를 신임하여 奉恩寺 주지로 삼아 불교의 교세가 일어났다. 명종 5년(1550)에 禪敎兩宗을 부활시키고 이듬해(1551)에는 僧科를 설치하였다. 普雨禪師는 뒤에 都大禪師가 되었으나 명종 20년(1565)에 文定大妃가 薨去하자 잇따른 排佛上疏와 유림들의 기세에 밀려 僧職을 박탈당하고 濟州島로 귀양을 갔다가 濟州牧使 邊協에게 피살되었다. 이 무렵에 명종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善政을 펼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34세의 젊은 나이로 薨去하였다. 仁順王后 沈氏와의 사이에 順懷世子를 출생하였으나 명종 18년(1563)에 13세로 薨去하고 왕위는 중종의 第9子인 德興府院君의 第3子 宣祖가 계승하게 되었다.
- 30) 祖行(?-?): 중종 33년(1538)에 性和와 함께 『達磨大師觀心論』의 간행에 刻手로 참여한 인물이다.
- 31) 志敬(?-?): 광해군 13년(1621)에 江華 傳燈寺의 복구에 참여한 인물이다.
- 32) 惠默(?-?): 명종 15년(1560)에 奉化 靑涼寺의 <乾漆藥師如來佛坐像>의 改金重修에 참여한 인물이다.
- 33) 智祖(?-?): 중종 39년(1544)에 八公山 桐華寺 金堂庵 東西塔의重修에 참여한 인물이다.
- 34) 性一(?-?): 東海 香雲庵에 소장되어 있는 『天地冥陽水陸雜文』의 간행에 板下本을 書寫한 인물이다.
- 35) 性敏(?-?): 세조 8년(1462) 7월에 『佛說阿彌陀經』의 간행에 鍊板으로 참여하였으며, 성종 14년(1483)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간행에도 鍊板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 36) 禹仁孫(?-?): 본관은 丹陽이고 字는 愛之이다. 曾祖父는 密直副使를 역임한 禹倅이고 祖父는 密直司事를 역임한 禹福生이며, 부친은 兵曹參議를 역임한 禹孝征이고 모친은 安岳 楊春伯의 따님이다. 성종 22년(1491)에 武科에 급제하고 연산군 4년(1498)에 重試 丙科로 급제하여 訓鍊判監이 되었다. 중종 원년(1506)의 中宗反正 때 晉城大君을 사저에서 宮闈로 陪從한 공로를 세워 原從功臣에 錄動되었으며 중종 2년(1507)에는 都摠府都事에 이어 經歷에 임명되었다. 중종 4년(1509)에 외직으로 나가 寧遠郡守에 임명되었으며 중종 10년(1515)에는 定平府使에 임명되었다. 중종 15년(1520)에 訓鍊院內贍司가 되었으며 중종 16년(1521)에는 平山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司僕僉正이 되었다. 이후 중종 19년(1524)에 襄陽府使, 중종 23년(1528)에 豐川府使 등을 거쳐 중종 27년(1532)에는 都摠府經歷에 임명되었다.
- 37) 智熙(?-?): 秋江 南孝溫(1454-1492)과 蘇齋 盧守愼(1515-1590) 등과 交遊하며 表訓寺의 주지를 역임한 인물

正³⁸⁾·智寬³⁹⁾ 등의 단편적인 行歷은 찾을 수 있다.

3.3 黃州 李順才家版『禪林寶訓』

黃海道 黃州는 현재의 黃海北道 黃州郡으로 동은 瑞興府 경계까지 51리이고 남은 鳳山郡 경계까지 23리이며, 서는 바다까지 50리이고 북은 平安道 中和郡 경계까지 39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488리이다. 郡의 東南으로 彥眞山脈이 지나고 南에는 慈悲嶺과 正方山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天柱山과 三峰山이 있다. 그리고 西北에는 大同江이 있고 중앙부에는 黃州川이 대동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산이 거의 없는 평야지대로 예로부터 땅이 비옥하여 곡창지대로 유명하며, 특히 황주사과는 예로부터 그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黃州의 姓氏로는 鐵和의 羅氏·崔氏·洪氏·李氏 등의 모두 유명한 續姓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黃海道 黃州地 西面 芻池里⁴⁰⁾의 李順才나 李順才家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黃州 李順才家에서는 명종 10년(1555)에 『禪林寶訓』과 『六經合部』⁴¹⁾가 간행된 바 있으며, 李順才는 명종 19년(1564)에 『妙法蓮華經』의 간행에도 大施主로 참여한 바⁴²⁾ 있다.

李順才家版『禪林寶訓』하권의 말미에는 祝願文·施主秩·刻手·供養主·木手·刊記 등의 간행기록이 수록되어⁴³⁾ 있으며, 右邊欄 外下部에는 상권에 朴進孫을 비롯한 35인과 하권에 乚水江을 비롯한 33인의 施主者名이 기록되어⁴⁴⁾ 있다.

(『秋江集』卷2. ‘贈表訓住持智熙’條 및 『蘇齋集』. 卷1. ‘次韻贈智熙’條 參看.)이다.

38) 信正(?-?): 東海 香雲庵에 소장되어 있는 『天地冥陽水陸雜文』의 간행에 刻手로 참여한 인물이다.

39) 智寬(?-?): 선조 22년(1589)에 日嵩·儀浩·性輝·海瓊·崔于技 등과 함께 일본 兵庫縣 藥山寺에 소장되어 있는 <甘露圖>를 그린 인물(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韓國歷代書畫家事典』. pp.2128-2129.)이다.

40) 黃州地 西面 芻池里: 오늘날의 黃州郡 都峙面 蘆洞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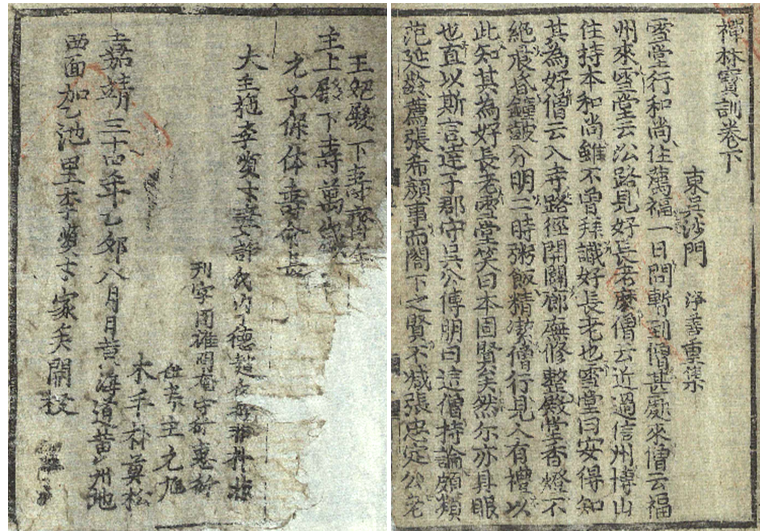
41) “嘉靖三十四年 黃海道黃州土西面芻池 李順才家開板 慈悲山深原寺移置.”(宋日基, 박지숙, “黃海道 寺刹 刊行佛書의 書誌的 研究,” 『韓國文獻情報學會誌』 第50卷 第1號(2016. 3), 402. 參看.)

42) “大施主李順才記付亡弟李德中靈駕” <桐華寺 所藏本『妙法蓮華經』. 卷6. 末尾. 施主秩.>

43)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下卷. 卷尾.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元子保休壽命長/ 大施主 李順才妻許氏內德 趙氏哲非 朴非/ 刻字 罔雄 罔奄 守衍 惠衍/ 供養主 元旭/ 木手 朴莫松/ 嘉靖三十四年乙卯八月黃海道黃州地/ 西面芻池里李順才家矣開板.”

44)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右邊欄外. 朴進孫(上02) 七今(上03·上07) 金內石(上04) 鄭奉昌(上05) 春班(上06) 金末孫(上08·上09) 朴貴達(上10) 李界宗(上11) 邊歲(上12) 咸進文(上13) 李文之(上14) 林永昌(上15) 吳進文(上16) 金芻叱(上17) 李棠一(上18) 崔扶叱孫(上19) 金斤孫(上20) 呂非(上21) 鄭萬卜(上22) 朴丁問(上23) 李哲僅(上24) 金水延(上25) 李順(上26) 沈千失(上27) 張石中(上28) 金凡孫(上30·上38) 甘宗(上31) 生今(上32) 孫江(上33) 李同金(上34) 仁氏(上35) 李崇衣(上36) 林崇己(上37) 性明(上39) 洪扶音同(上40) 乚水江(下01·下06) 張香孫(下03) 張之彥(下04) 云非(下05) 良時(下07) 德非(下08) 金孫(下09) 丹金(下10) 朴斤花(下11) 吾音德(下12) 金時(下14) 凡台(下16) 朴斤從(下17) 金欣貞(下18) 鄭云又(下21) 金莫同(下22) 山台(下23) 莫之(下24) 趙修孫(下25) 金孟祿(下26) 連台(下27) 金介叱同(下28) 鄭世間(下29) 李末乙伊(下30) 金禮孫(下31) 何有山(下32) 李良花(下33) 林世漢(下35)



<寫眞 3> 黃州 李順才家版「禪林寶訓」의 書影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李順才家版「禪林寶訓」의 祝願文은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元子保休壽命長”으로 명종과 仁順王后⁴⁵⁾ 및 원자인 順懷世子⁴⁶⁾ 등의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내용이다.

李順才家版「禪林寶訓」은 李順才의 처인 許氏德과 趙哲非 및 朴非 등 大施主의 후원으로 罔雄·罔奄·守衍·惠衍 등에 의하여 板刻되고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供養主 元旭과 木手 朴莫松 등의 조력에 관하여도 기록되어 있다.

李順才家版「禪林寶訓」의 간기에는 “嘉靖三十四年乙卯八月 黃海道黃州地西面芑池里 李順才家矣開板”이라 기록되어 있어 嘉靖 34년(명종 10, 1555) 8월에 黃海道 黃州地 西面 芑池里의 李順才家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順才家版「禪林寶訓」을 開刊하는데 조력한 인물들에 관한 자세한 행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그 중 守衍⁴⁷⁾의 단편적인 行歷은 찾을 수 있다.

林京信(下36) 春月(下37) 崔漢孫(下38) 張加九之(下41) 張世亨(下42).

45) 仁順王后(1532-1575): 조선 제13대 국왕인 明宗의 妃로 青松 沈綱의 따님이다. 명종 즉위년(1545)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명종 6년(1551)에 順懷世子를 출생하였다. 세자가 14세로 일찍 薨去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大妃로서 잠시 垂簾聽政을 하였으며, 선조 8년(1575)에 昌慶宮에서 享年 44세로 薨去하였다.

46) 順懷世子(1551-1563): 諱는 李暉이며 兒名은 峴齡이다. 明宗의 아들로 母后는 仁順王后이다. 명종 12년(1557)에 세자로 책봉되고 昌原 黃大任의 따님을 世子嬪으로 맞았으나 黃氏가 病弱하여 1년이 넘게 嘉禮를 미루자 명종 14년(1559)에 茂松 尹玉의 따님을 世子嬪으로 교체하여 嘉禮를 올렸다. 가례를 올린 뒤 얼마 되지 않아 명종 18년(1563)에 後嗣도 없이 13세로 薨去하였다.

47) 守衍(?-?): 17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걸쳐 활동한 彫刻僧으로 광해군 7년(1615)에 太顓을 도와 金堤 金山寺 <獨聖像>의 造成, 광해군 14년(1622)에는 玄眞을 도와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의 조성, 인조 원년(1623)에 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의 造成, 인조 2년(1624)에 益山 崇林寺 <地藏十王像>의 造成, 인조 2년(1625) 4월부터 7월까지 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과 <塑造十六羅漢坐像>의 조성,

4. 朝鮮時代 刊行『禪林寶訓』의 版種別 書誌的 特徵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3종의 『禪林寶訓』은 대체로 고려 우왕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에서 간행된 『禪林寶訓』을 저본으로 하여 板刻·刊行된 듯하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3종의 『禪林寶訓』에 관한 각 판종별 서지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에 나타나는 각종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禪林寶訓』의 각 판종별 서지적 특징을 요약하면 <表 4>와 같다.

<表 4>를 통하여 볼 때,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3종의 『禪林寶訓』은 表題·著編者·版種·卷冊數·序文·卷頭題·版心題·卷尾題·收錄禪師數·收錄法語篇數·行字數·註文行數·板口·引用根據·紙質·裝訂 등 여러 사항에서 고려시대 靑龍寺版 『禪林寶訓』을 覆刻한 것으로 파악되나, 刊行地·刊行處·刊行年·邊欄·半郭·界線·魚尾·版心記錄·刻手名·施主者名·規格·附記·木板數·藏板處 등에서는 차이도 없지 않다.

이들 각 판종별 세부적인 차이는 간행지·간행처·간행년 등의 刊行事項은 물론 邊欄의 경우 靑龍寺版이 ‘上下單·左右雙邊’인데 비하여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모두가 ‘四周單邊’이다.

半郭과 규격의 경우에 靑龍寺版에 비하여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작아졌으며, 界線의 경우 靑龍寺版이 ‘有界’인데 비하여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無界’이며, 魚尾의 경우 靑龍寺版·大光寺版이 ‘上下下向黑魚尾’인데 비하여 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上下下向·下內向黑魚尾’이다.

版心記錄의 경우 靑龍寺版·大光寺版이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인데 비하여 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 下魚尾’이며, 刻手名의 경우 大光寺版에만 ‘下大黑口’ 내에 부호로 음각되어 있다. 施主者名의 경우 靑龍寺版·大光寺版·表訓寺版은 하권의 권미에만 있는데 비하여 李順才家版은 하권의 권미와 右邊欄의 외부 아래에 양각되어 있다.

靑龍寺版의 附記에 있던 元朝初刊序·元朝初刊跋·元朝重刊跋·高麗刊行跋·刊行秩·木記 등은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에서는 刊行秩을 제외한 사항들이 모두 刪去되었다.

따라서 木板의 수량도 靑龍寺版은 상권 40판과 하권 46판에 양면으로 板刻된 도합 86판이나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은 상권 40판과 하권 43판에 양면으로 판각된 도합 83판이며, 藏板處도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인조 17년(1639)에 禮山 修德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의 조성 등에 참여한 인물이다.

<表 4> 靑龍寺版·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禪林寶訓」의 各 版種別 書誌의 特徵

番號	事項	靑龍寺版 (1378)	大光寺版 (1525)	表訓寺版 (1542)	李順才家版 (1555)	備考
01	表題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02	著編者 1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大慧宗杲·竹庵士珪 初集]	
03	著編者 2	東吳沙門 淨善 重集	東吳沙門 淨善 重集	東吳沙門 淨善 重集	東吳沙門 淨善 重集	
04	校證者	[妙機 校證]	—	—	—	
05	版種	木版本	木版本	木版本	木版本	
06	刊行地	[忠清道] 忠州	[全羅道] 順天地	[江原道]	黃海道 黃州地 西面 芑池里	
07	刊行處	靑龍禪寺 宴晦菴	母后山 大光寺	金剛山 表訓寺	李順才家	
08	刊行年	宣光八年戊午(1378) 二月	嘉靖四年乙酉(1525) 孟夏	嘉靖嘉靖二十一年壬寅 (1542) 兆冬	嘉靖三十四年乙卯 (1555) 八月	
09	卷冊數	上下 2卷1冊	上下 2卷1冊	上下 2卷1冊	上下 2卷1冊	
10	序文	—	—	—	—	
11	卷頭題(上)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12	卷頭題(下)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13	版心題	訓	訓	訓	訓	
14	卷尾題(上)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15	卷尾題(下)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禪林寶訓	
16	禪師數(上)	17禪師	17禪師	17禪師	17禪師	
17	禪師數(下)	17禪師	17禪師	17禪師	17禪師	
18	法語數(上)	142篇	142篇	142篇	142篇	
19	法語數(下)	136篇	136篇	136篇	136篇	
20	邊欄	上下單·左右雙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21	半郭	17.9×13.4cm	16.3×12.3cm	16.0×12.0cm	15.3×12.3cm	
22	界線	有界	無界	無界	無界	
23	行字數	10行20字	10行20字	10行20字	10行20字	
24	註文	註雙行	註雙行	註雙行	註雙行	
25	板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26	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下內向黑 魚尾	上下下向·下內向黑 魚尾	
27	版心記錄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 下魚尾	上魚尾 訓卷次 下魚尾 張次 下魚尾	
28	刻手名	—	下大黑口內(符號)	—	—	
29	施主者名	卷尾	卷尾	卷尾	卷尾·右邊欄外下	
30	引用根據	有(各篇末)	有(各篇末)	有(各篇末)	有(各篇末)	
31	規格	28.3×18.0cm	23.3×15.70cm	24.1×14.7cm	23.2×15.6cm	
32	[附]初刊序	東吳沙門淨善敬書	—	—	—	
33	[附]初刊跋	錫山尤袤	—	—	—	
34	[附]重刊跋	吳門比丘永中	—	—	—	
35	[附]刊行跋	[跋(幻菴)] ⁴⁸⁾	—	—	—	

48)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忠清道 忠州]: [靑龍禪寺], [禪王 4(1378)].

“右寶訓者 … 可以警衆者析爲二/ 卷目之曰禪林寶訓兩街了/ 庵行齊公得之一部歎未曾/ 有囑門人尙偉禪者募緣彫/ 板廣令流布幻菴爲題數語/ 于末/ 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 宴晦菴.”

番號	事項	靑龍寺版 (1378)	大光寺版 (1525)	表訓寺版 (1542)	李順才家版 (1555)	備考
36	[附]刊行秩	有 ⁴⁹⁾	有 ⁵⁰⁾	有 ⁵¹⁾	有 ⁵²⁾	
37	[附]木 記	幻菴·沙門/無作	—	—	—	
38	紙 質	韓紙(楮紙)	韓紙(楮紙)	韓紙(楮紙)	韓紙(楮紙)	
39	裝 訂	線裝(五針眼訂)	線裝(五針眼訂)	線裝(五針眼訂)	線裝(五針眼訂)	
40	木板數	上40板 下46板 (上下86板 兩面刻)	上40板 下43板 (上下83板 兩面刻)	上40板 下43板 (上下83板 兩面刻)	上40板 下43板 (上下83板 兩面刻)	
41	藏板處	留板忠州靑龍禪寺	[大光寺]	[表訓寺]	[李順才家]	
42	所藏處	리움 誠庵古書 忠州博物館 등	國立中央圖書館 등	國立中央圖書館 등	國立中央圖書館 등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고려시대의 靑龍寺版『禪林寶訓』은 우리나라에서 初刊된 경우였던 만큼 中朝 元版의 版本의 遺制를 충실히 覆刻함에 따라 우리나라 版本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고 元版의 遺制를 그대로 답습한 편이었으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의『禪林寶訓』은 款式과 形態의인 면에서 元版의 遺制에서 벗어나 조선시대의 사정에 적절한 版本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이 이들 版種間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5. 結 論

이상에서 고려 우왕 4년(1378)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간행된『禪林寶訓』과 조선시대에 大光寺와 表訓寺 및 李順才家 등에서 간행된『禪林寶訓』의 각 版種別 書誌의 特徵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禪林寶訓』은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禪門의 先德祖師들이 행한 嘉言善行을 모아서 撰集한 선가의 敎訓書이며 禪法書이다.

(2)『禪林寶訓』상하 2권에는 상권에 17선사 142편의 法語가 수록되고 하권에 17선사 136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도합 34선사 278편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禪宗禪師들의 宗派는 雲門

49)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禪林寶訓』. 木板本. [忠清道 忠州]: [靑龍禪寺], [禍王 4(1378)].

“募緣 尙偉 萬恢/ 助緣 優婆塞高息機 優婆夷崔省綠/ 留板忠州靑龍禪寺.”

50)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禪林寶訓』. 木板本. [全羅道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 [中宗 20(1525)].

“嘉靖四年乙酉孟夏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刊 … 刻手張壽命 道信 戒心 勸化正悟 供養主敬員 朱仁孫 漆化主 道明 化主納玉戒.”

51)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禪林寶訓』. 木板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嘉靖廿一年壬寅兆冬 金剛山表訓寺開板/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大君壽命長 … 刻手智熙 木板信正 供養主性敏 未醬智寬 別座元惠 緣化信眉 性浚.”

52)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元子保休壽命長/ 大施主李順才妻許氏啗德趙氏哲非朴非/ 刻字四雄四奄 守衍惠衍/ 供養主元旭/ 木手朴莫松/ 嘉靖三十四年乙卯八月黃海道黃州地/ 西面芻池里李順才家矣開板.”

宗・曹洞宗・臨濟宗 등이고 그 중에도 臨濟宗의 楊岐派와 黃龍派의 선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禪林寶訓』의 각 法語의 말미에 수록된 引用根據는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은 略式의 名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일한 引用根據가 연속될 경우에는 各條마다 기록한 경우도 있고 先條에는 省略하고 末條에만 기록한 경우도 있다.

(4)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禪林寶訓』의 版種은 고려시대 말기의 靑龍寺版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도합 4종이며, 조선시대의 大光寺版은 중종 20년(1525) 5월에 順天의 母後山 大光寺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후원 아래 張壽命・道信・戒心 등의 板刻에 의하여, 表訓寺版은 중종 37년(1542) 冬節에 金剛山 表訓寺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후원으로 智熙禪師의 판각에 의하여, 李順才家版은 명종 10년(1555) 8월에 黃海道 黃州地 西面 芻池里의 李順才家에서 그의 처인 許氏 등의 후원으로 岡雄・岡奄・守衍・惠衍 등의 판각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5) 조선시대에 간행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 3종의 『禪林寶訓』은 각 판종별 서지적 특징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靑龍寺版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간행된 듯하며, 고려시대의 靑龍寺版은 우리나라에서 初刊된 경우였던 만큼 中朝 元版의 저본을 충실히 覆刻하여 元版의 遺制를 그대로 답습한 편이었으나 조선시대의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은 款式과 形態의 인 면에서 元版의 遺制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사정에 적절하도록 간행됨으로써 우리나라 版本으로서의 特徵이 잘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참고문헌>

[原典資料]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忠州]: [靑龍禪寺 宴晦菴], [禪王 4(1378)].

<忠州博物館 所藏本>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 [中宗 20(152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大慧宗杲・士珪 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安鼎福 編. 『東史綱目』. 附錄. 下卷. 地理考. ‘三韓考’條.

[單行本・論文]

國立文化財研究所 編. 『韓國歷代書畫家事典』. 大田: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書誌學研究 第73輯(2018. 3)

朴文烈.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2輯(2017. 12). 21-48.

宋日基, 박지숙. “黃海道 寺刹 刊行佛書의 書誌的 研究.” 『韓國文獻情報學會誌』 第50卷 第1號
(2016. 3). 395-416.

黃仁奎. “懶庵普雨의 生涯와 佛教界 門徒.” 『東國史學』 第40輯(2004). 247-282.

〔電子情報源〕

國家記錄遺產: <http://www.memorykorea.go.kr/>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

人名規範檢索: <http://authority.dila.edu.tw/person/>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